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적 정의로운 세상 실현이 목표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2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환경운동을 펼쳐오다가 1999년 경실련에서 독립하여 「환경정의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홀로서기를 했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대지산 살리기운동’을 진행하는 등 양성한 활동을 해왔다. 이 단체의 앞으로의 목표는 수요관리 중심의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 인터뷰 : 오성규 기획실장 ■ 일시 : 6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환경정의시민연대 회의실

■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경실련에서 홀로서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출범 경과와 동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던 해인 1992년 11월 14일, 경실련 환경개발센터(Center for Environment & Development)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경실련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목표인 ‘경제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개발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경제문제가 환경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경실련의 경제정의운동이 환경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1999년 경실련서 독립 홀로서기

이후 1997년에 명칭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로 개칭하면서 ‘환경정의’라는 환경운동의 담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999년 7월 1일부로 경실련에서 독립하여 ‘환경정의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역사로 보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단체로 독립한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활동해야 할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무엇인

지요.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든 부족하면 무조건 공급하는 사회경제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수요를 적절하게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시스템이 자원의 고갈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해서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제1의 운동목표는 ‘수요관리 중심의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 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가 환경피해에 훨씬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파괴를 대가로 얻는 이익과 피해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 빈민, 노동자, 여성 등이 그에 대비되는 사회적 강자들에 비해 환경피해를 많이 입게되는 부정의한 현실을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두번째 운동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분야 수요 관리를 위해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토지 정의 운동, 에너지·대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꾸준히 환경담론을 연구하고 현실에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 ‘환경정의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

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환경운동도 근본적으로는 시민운동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운동은 그 생명이 다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에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인식하면서 실천한다는 것이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단체와 운동가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

■ 그간 환경정의시민연대의 활동 중 기억할 만한 일은?

최근에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대지산살리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운동이 정부의 녹지보존이라는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차원에서 땅 한평 사기운동, 주민이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보전에 주체적으로 나섰던 그린벨트 지정 청원운동, 현장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대지산 녹지자연도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왜곡 제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취소소송 등 수많은 활동들을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죽전택지개발 반대 '나무 위 시위' 강행

지난 4월 29일부터 17일간 진행된 '나무 위 시위'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개발사업이 시민들의 합리적인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기조를 유지해왔던 관행을 깨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전반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1980~1987년까지는 '반공해운동의 시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온산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88~1991년까지는 '환경운동의 모색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문 환경운동 조직이 태동했고, 사회적으로는



대지산살리기운동 과정에서 진행한 '금줄치기 행사'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이 사회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기였습니다. 1992~1995년까지는 '환경운동의 확산기' 라고 할 수 있고, 1996~현재까지는 '시민운동의 중심으로서 환경운동의 성장'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10여년 동안 환경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의 이념적 바탕에는 다양성이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환경운동 내부에는 이념적으로 획일화되고 있어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사회가 그랬듯이 다양한 이념적 바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부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의 훼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연환경 파괴를 통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점차 대규모화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도시 내의 녹지 훼손으로 인해 대지질의 악화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문제로 직결되어 아토피 피부염, 피부암, 호흡기질환 등 심각한 공해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가뭄과 홍수도 자연환경 파괴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편하자고 포장한 도로 때문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더 심각



중랑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진행한 식목일 식수행사

합니다. 이렇다보니 농산물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어 비싼 채소를 사먹어야 하는 국민들이 그 비용을 뭉땅 책임져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인간중심의 질서로 바꾸어내는 것이 경제발전이고 개발입니다. 이제 인간이 원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순리에 인간도 지배를 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겸허해 할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 우리 국민들이 환경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년 전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의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주부가 워크숍에서 발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슈퍼를 갈 때, 어느 슈퍼를 가야 할지, 대형 할인점에 가야하는지 혹은 동네 구멍가게에 가야하는지, 대형 할인점은 필요 이상의 많은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만 가격이 싸고, 동네 구멍가게는 그 반대입니다. 또 내 아들 교육을 위해 미술 학원에 보내야 할지, 그냥 자연에서 놀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쉽고 편하게 생활하기보다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인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種)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인위적인 행위보다는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물, 에너지, 폐기물 등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양식을 몸에 익히는 것이 곧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10만 회원 참여로 환경운동 대중화

■ 환경정의시민연대의 21세기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한다면.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환경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들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등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운동이 보편적인 자연보호운동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색채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라는 담론을 연구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토지 정의 운동, 에너지·대기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는 점점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면서 대량생산된 값싼 상품들을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사회야말로 인류공멸의 첩경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상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구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민들만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것이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